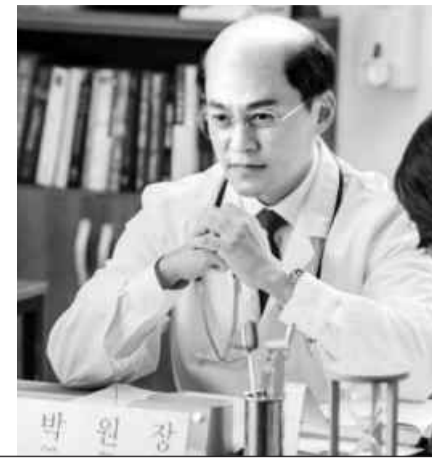




'킹메이커'

극장가·OTT 불만한 영화·시트콤

다가오는 설 연휴, 극장에서 영화볼까 집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볼까? 방콕패스에서 해제된 극장가에는 다양한 장르의 기대작들이 개봉했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 19로 외출이 꺼려진다면 집에서 OTT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미다. 티빙 등이 새롭게 공개한 시트콤부터 지난해 화제작을 보며 무료함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설 연휴 동안 불만한 작품을 소개한다.



'내과 박원장'

# '대통령 김대중'은 극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다큐 영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킹메이커' vs '해적:도깨비 깃발' 격돌...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

설 연휴 극장가에는 설경구·이선균 주연의 '킹메이커'와 강하늘·한효주 주연의 '해적:도깨비 깃발'이 26일 동시 개봉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등 애니메이션이 설 특수 어린이 관객을 노리며 개봉했다.

'킹메이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치인 김윤범(설경구)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이선균)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목적과 수단의 정당함을 묻는 주제가 무거운 수 있지만 변성현 감독 특유의 유머가 긴장을 덜어준다.

사극 액션 어드벤처 '해적:도깨비 깃발'은 2014년 여름 개봉해 800만 관객을 동원한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후속작이다. 강하늘과 한효주가 의적단 두목 무치와 해적단 주해랑 역을 맡아 고려 왕실의 마지막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모험을 펼친다. 이들의 모험이 바다에서 펼쳐지는 만큼, 컴퓨터그래픽과 시각특수효과를 활용한 초현실적인 장면들이 볼거리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은 1971년 첫 대권 도전과 1980년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휘말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 1987년 6월 항쟁과 1997년 대통령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당선 당시의 모습을 담았다.

애니메이션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은 난생처음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자두'가 최대 라이벌인 전복이와 함께 저주를 풀은 돌하르방을 깨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으며 또다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천재 추리 탐정 설록홀츠'도 개봉했다.

그밖에 720만명을 동원한 흥행작 '스파이더맨:노웨이 홈', 유쾌한 음악과 다양한 캐릭터가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싱2게더'는 설연휴 기간에도 상영을 이어간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해적:도깨비 깃발'

# '대머리 이서진'은 OTT로

티빙 시트콤 '내과 박원장'서 라미란과 부부 코믹 연기 '오징어게임'·한국 첫 우주 SF '고요의 바다' 등 화제작 즐비

최근 티빙, 카카오톡TV 등이 시트콤, 웹드라마, 영화를 새롭게 선보이며 안방을 점령했다.

티빙은 14일 이서진·라미란 주연의 시트콤 '내과 박원장'을 공개했다.

이서진이 첫 코믹 연기를 선보이는 '내과 박원장'은 초짜 개원의의 '웃픈' 현실을 그려낸 메디컬 코미디로, 진정한 의사를 꿈꿨으나 오늘도 파리 날리는 진료실에서 의술과 상술 사이를 고민하는 박원장의 적자탈출 생존기를 그린다. 라미란은 극 중 박원장의 아내인 사모님 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꾀했다.

카카오톡TV가 지난 8일부터 매주 토요일 공개하고 있는 오리지널 웹드라마 '며느라기'는 시즌2로 돌아와 인기를 끌고 있다. 시즌 1이 결혼과 함께 며느라기 된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이번엔 'K-임산부의 성장일기'를 담은 예정이다. 주인공 민사린(박하선)이 임신을 하며 보이는 반응은 이 시대 직장 여성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디즈니+가 선보인 마동석,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영화 '이터널스'와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쌍'도 추천한다. '이터널스'는 수천 년에 걸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불멸의 히어로들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데비안츠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리며 '쌍'은 극장을 되살리기 위해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 참가한 동물들이 자신만의 노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룬다.

골든글로브 새 역사를 쓴 '오징어게임'부터 유아인 주연의 '지옥', 한국 첫 우주 SF 시리즈 '고요의 바다' 등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도 연휴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다.

'오징어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지난해 대사, 의상, 게임 등을 유행시키며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배우 오정수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돼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연상호 감독의 '지옥'은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6부작 시리즈다. 작품 공개 이후 넷플릭스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신념과 믿음'에 관한 수많은 해석을 낳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필수 자원의 고갈로 황폐해진 근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고요의 바다'는 특수 임무를 받고 달에 버려진 연구 기지로 떠난 정에 대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다. 배우 나은우 우주 생물학자 송지안을, 공유는 탐사대장 한윤재를 맡았다. 영화배우 정우성이 제작자로 참여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요의 바다'



'오징어게임'

CINEMA OTT CINEMA OTT CINEMA OTT CINEMA OTT CINEMA OTT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